

# 녹두 꽃

2025 가을 61

## 녹두칼럼

유족 수당 없이 명예회복 없다

영영선 전북자치도의회 의원

2024년~

## 전시

세계에 새겨진 혁명의 기록

동학농민혁명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기념 순회전

## 특집

나라 없는 시대, 문학으로 길을 묻다

동학농민혁명의 혼을 품은 소설가 이광재

## 유족인터뷰

손으로 가린 입, 동학농민혁명의 비밀스러운 기억

홍성기,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홍계관의 증손자

## 인권과 평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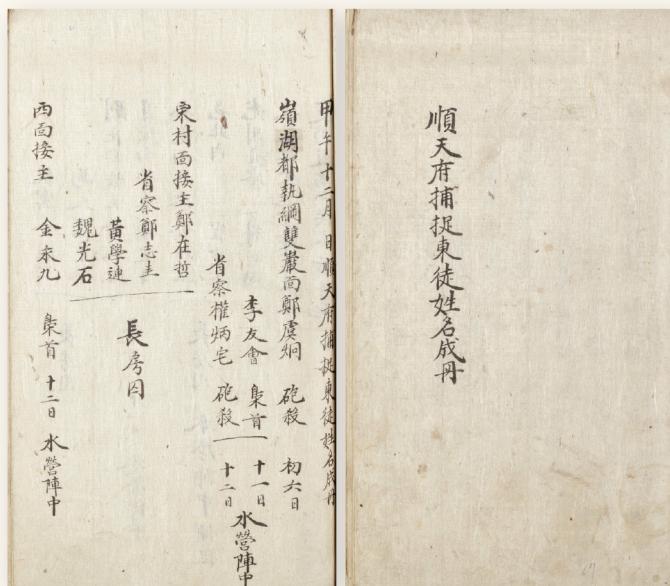
조지아에서 온 제가 그날, 동학을 만났습니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Donghak Peasant Revolution Foundation

〈동학농민혁명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기념〉

## 순천부포착동도성명성책 (順天府捕捉東徒姓名成冊)



이 책은 동학농민혁명 당시 순천에서 동학농민군에 가담했던 인물들의 구체적인 명단을 담고 있어, 당시 혁명의 규모와 참여 계층, 지역적 특성 등을 파악할 수 있는 희귀한 역사 자료이다. 동학농민혁명과 지역사 연구에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채널



홈페이지



웹진



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 녹두꽃

## 표지 설명



61호(2025년 기uelho) 표지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수당지급 계획에 따라 혁명 당시 스러져간 이들의 평등과 인권, 자주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참여자의 이름 하나하나가 새겨진 추모관의 명패를 비주었다.

## 통 권 61호

발행처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전 화 063 530 9413  
 발행일 2025년 10월 1일 팩 스 063 538 2893  
 발행인 신순철 기획·편집 임현진  
 이메일 1894@1894.or.kr 제 작 (주) 고려디자인  
 홈페이지 www.1894.or.kr  
 주 소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덕천면 동학로 742  
 소식지 「녹두꽃」 구독 신청 063-530-9413

## 02 기념공원의 가을

### 04 녹두칼럼

유족 수당 없이 명예회복 없다

### 06 전시

세계에 새겨진 혁명의 기록  
 동학농민혁명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기념 순회전

### 10 특집

나라 없는 시대, 문학으로 길을 묻다  
 동학농민혁명의 혼을 품은 소설가 이광재

### 16 재단포커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제6기 이사회 출범  
 주한외국인 유네스코 문화유산 탐방 기념관 방문  
 전봉준 순국 130주년 기념 특별전,  
 어린이 체험 교육과 함께한 현장 스케치  
 2025년 정읍 동학농민혁명 학술대회  
 제24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2025년 동학농민혁명 연구·창작자 워크숍 성황리 개최  
 2025년 재단 정기 학술대회  
 동학농민혁명기록물 세계기록유산 제1차 순회전 개막식  
 2025년 부안 동학농민혁명 학술대회  
 「동학농민혁명 신국역총서 17」 발간

### 22 유족 인터뷰

손으로 가린 입, 동학농민혁명의 비밀스러운 기억  
 흥성기,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흥계관의 증손자

### 30 인권과 평화

조지아에서 온 제가 그날, 동학을 만났습니다

### 34 지역포커스

이상식 선생님을 추모하며  
 동학농민혁명 131주년 기념 세계혁명예술제  
 춘암 박인호 선생 85주기 추모 학술대회  
 남원시립국악단 창작 창극 「소녀춘향」 개막  
 2025년 서울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학술대회  
 삼혁당 김영원 선생 순국 106주년 추모식

### 39 언론에 보도된 동학농민혁명

### 40 녹두꽃 다시 피다

### 46 2025년 기념재단 주요 일정

### 48 독자 참여 이벤트



가을빛 물결 따라,  
혁명의 숨결로



# 유족 수당 없이 명예회복 없다

## 유족 수당 추진과 역사 인식의 부재

필자가 지난해 제·개정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전북특별자치도가 내년부터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도내에 거주하는 유족에게 수당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이에 맞물려 "조선시대에 일어난 일에 수당을 왜 주나?", "그럴 바엔 임진왜란 의병들에게도 지급이라" 등 시도 때도 없이 비난 전화와 문자도 쇄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역사에 대한 무지의 소산이다.

현재 국가보훈부는 1895년 명성황후 시해로 일어난 을미의병을 최초 항일 독립운동으로 인정,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똑같이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에 맞서 싸운 동학농민군은 단 한 건의 서훈도 받지 못했다. 굴곡진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그런데 "예산은 미래를 위해서 써야지, 지나간 과거사에 쓰는 것은 낭비다."라고 동료의원마저 조언한다. 이 또한 무식의 발로다. 윤석열과 그 일당들이 21C 대명천지에 그것도 절차적 민주주의가 정착한 대한민국에서 왜 계엄을 시도했을까? 무모해서다. 여기서 무모란 역사 인식의 부재다. 근현대 역사서까지는 아니어도 황정민과 정우성이 열연한 「서울의 봄」 영화 한 편만 제대로 관람했다면 계엄은 언감생심이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는 만고불변의 역사 법칙 아니겠는가.

## 염영선

전북자치도의회 의원

<약력>

정읍시 학원연합회장(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초대 대변인(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초고압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현)



## 항일투쟁의 출발점, 동학농민혁명

'보국안민·척양척왜' 기치를 내걸고 봉기한 동학농민군은 그 병력이 약 20만 명에 이르렀다. 당시 동학농민군은 가장 강력한 항일 군대였다. 동학농민혁명은 근세 항일투쟁사에서 양국 최대 전쟁이며 출발점이었다. 이는 항일의병과 독립운동으로 이어졌다. 해방 후 4·19 혁명과 5·18 민주화 운동, 그리고 6·10 민주항쟁과 촛불혁명으로 솟아났다. 윤석열의 12·3 내란에 맞선 빛의 혁명은 131년 전에 일어난 동학농민혁명사의 연속이다. 역사는 비약하지 않는다.

하지만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위대한 혁명은 반란으로 매도되었다. 의로운 행동은 역적으로 취급당했다. 그간 후손들은 버림받은 역사의 고아가 되었다.

다행히 2004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유족의 범위를 명시하고 명예 회복을 시도하였다. 하지만 유족 수당은 제외되었다. 이는 법의 오류이자 국가의 농간이다. 참여자와 직계가족의 사후, 지체된 보상을 그 후 손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역사의 책무이자 인지상정이다. 유족 수당 없는 명예회복은 헛방이다.

### 국가의 외면, 남겨진 후손들의 질문

유족이란 유공자의 생몰 시기와 밀접하다. 동학농민혁명 유공자는 독립유공자보다 한 세대 위다. 법률에서 증손자녀를 초과한 경우는 '동학특별법'이 유일하다. 현재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에 등록된 유족의 경우, 친족간 유족이 존재한다. 따라서 다른 유공자처럼 유족 대표를 선정하는 것은 유족 간 분란과 갈등의 소지가 다분하다. 유족을 두 번 죽이는 일이다.

유족 수당 금액은 정읍시의 경우 등록된 모든 유족에게 월 10만 원, 연 12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유족 전체에게 연 50만 원 지급을 추진 중이다. 생색이다. 이는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를 초래하여 주고도 욕먹을 게 뻔하다.

동학농민혁명은 지역과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사에 빛나는 인류의 자산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그 발생지이고 도민은 그 후예다. "모든 혁명은 불평등의 소산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다. 신분 사회 폐지 등 평등사회를 지향하며 봉기한 혁명의 유족이 불평등하게 수당을 받는다면 이는 혁명정신의 훼손 아닌가?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하면 3대가 흥한다는 말은 이제 영원히 사라져야 한다." 지난 6월 6일 이재명 대통령의 현충일 추념사다. 이 땅의 자주와 독립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고 희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서훈조차 받지 못하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후손들은 어찌란 말인가.

늦었지만 전북특별자치도에서만이라도 최소한의 경제적 보상을 하는 것은 스스로에 대한 위안이자 자존이다. 이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가 독립유공자 서훈을 받고 동학농민혁명 정신이 헌법전문에 수록되어 대한민국의 가치를 한층 높이는 단초가 되리라 확신한다.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유족수당 지급정책 도민공청회

| 일 시 | 2025. 7. 31.(목)

| 장 소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총회의실

| 주 최 | 전북특별자치도



정의는 곧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이다. 사람이 어떤 입장에서 마땅히 행하여야 할 정의인 것인가? 동학농민혁명

06. 전시 당시 농민군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고자 하였다.

그들이 보여준 민주적 질서의 가능성은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또한 그때는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인

인권이 당연히 알았던 시대였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들은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지향하며, 억압적이고 차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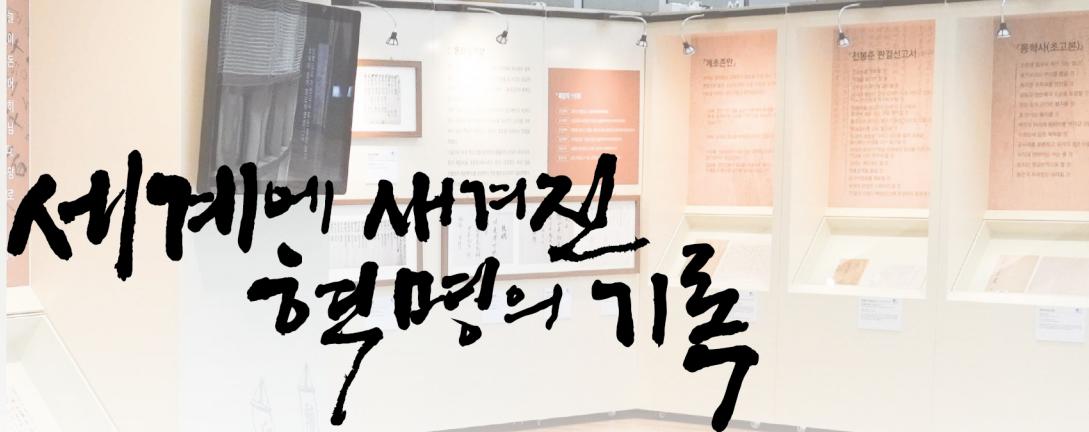
적인 제도의 철레를 요구했다.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움직임은 숱한 진압에 가로막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뜻과 정신은 3·1운동,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 촛불혁명 등으로 계승되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이념적 뿌리가 되었다.



전시 기획 조한빛(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학예연구사)

2024년 11월 5일 동학농민혁명기념관 1층에서 열렸던 특별전시 <세계에 새겨진 혁명의 기록>이 2025년 4월 13일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동학농민혁명과 세계기록유산 사업에 대한 전국적 관심을 유도하고, 동학농민혁명기록물에 담긴 인류 보편적 가치의 확산과 세계사적 의의에 대한 이해를 돋는 전시로 호평을 받았다.

특별전시를 모니터링한 전문가 위원은 “동학농민군이 지향하였던 인간 존중과 평등, 정의와 인권, 자주와 평화 등 인류가 공유하며 지켜내야 할 부분을 변화와 개혁, 협치와 상생, 자주와 항전, 정의와 인권의 기록 4개의 주제로 나누어 시대적 변화 이야기와 함께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하여 세계기록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잘 담아냈다”며 긍정적인 피드백을 전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특별전시의 성과를 지역사회 등에 공유하며, 동학농민혁명기록물에 대한 가치 제고를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또한 한정된 기간,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에 위치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의 특정 공간에서만 볼 수 있었던 전시였기에 지역적·물리적인 요인 등으로 직접 방문 및 관람을 하지 못해 아쉬웠다는 각 계의 의견도 많았다.

이에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은 2025년 하반기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인 동학농민혁명기록물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고, 홍보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찾아가는 순회전시를 기획했다. 지역적 한계를 넘어 여러 장소에서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을 직접 보고 느끼며, 그 속에 담긴 인류 보편적 가치에 대해 사유하고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자 준비한 것이다. 본 순회전시 <세계에 새겨진 혁명의 기록>은 장흥동학농민혁명기념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국립순천대학교박물관, 남원다움관 순으로 개막한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기념 순회전  
장흥동학농민혁명기념관

대부분 고문서류, 전적(典籍)류인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은 전통 한지 등에 기록한 문서 및 책자 형태이다. 이와 같은 기록물의 특성상 그 자체만으로 관람객에게 중요한 역사적 사실이나 가치, 의의 등을 전달하기란 한계가 있다. 따라서 관람객 스스로 추체험(追體驗)과 감정이입을 할 수 있도록 기록물의 방대한 전체 내용 중에서 핵심 부분을 발췌해 재구성했다. 유물 디스플레이·패널·실사 출력 등 기본 전시기법과 더불어 황도현 전투 애니메이션·한달문 옥중 편지 내레이션·아카이브 등의 영상 콘텐츠를 만들어 활용했으며, 동학농민혁명기록물 전국 지도 스티커 활동지·공산초비기 스템프 활동지·오늘 하루 기록하기 포토박스·기록 카드 쓰기 등 다채로운 교육체험 프로그램도 개발했다.

기록물은 그 내용과 의미를 보다 많은 이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활용했을 때, 비로소 빛을 발하기 마련이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인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이 전라권 4개 지역으로 찾아가 여러 관람객을 만나면서 민주, 인권, 평등, 정의, 자주, 평화 등의 인류 보편적 가치는 더욱 환하게 빛날 것이다. 올해의 성과를 토대로 향후에는 충청권, 경상권, 강원권, 서울·경기권으로까지 그 빛을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전시를 통해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이 개별적·단편적·평면적인 기술(記述)로만 남지 않고, 그 속에 담긴 소중한 가치가 다층적·다각적·입체적으로 전달되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기를 기대한다.

##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기념 순회전 일정

### 장흥

장흥동학농민혁명기념관  
2025. 8. 18. ~ 2025. 8. 30.

###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2025. 9. 3. ~ 2025. 9. 13.

### 순천

국립순천대학교박물관  
2025. 9. 16. ~ 2025. 9. 26.

### 남원

남원다움관  
2025. 10. 1. ~ 2025. 10. 12.

## 프롤로그

### 혁명의 기록을 세계에 새기다

동학농민혁명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인증서



석남역사 | 1951년 | 18cm × 21.5cm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자료

## 02

### 협치와 상생의 기록

#### 집강소를 세우다

집강소라는 민관협력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할 뿐 아니라,  
동학교단 내에서도 포접제를 운영하며 여러 직책을 부여하는 등  
협치와 상생을 도모했던 모습이 담긴 기록



나주 명록 | 1894년 | 159.8cm × 23.1cm |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춘당록 | 1900년대 | 18.5cm × 27.5cm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 03

### 자주와 항전의 기록

#### 외세의 침략에 맞서다

일본의 침략 의도가 노골화되자, '항일 투쟁'을 최우선 목표로 삼으며  
자주와 자립을 위한 항전의 모습과 그에 대한 인식 및 시국관이 담긴 기록

동학농민혁명기록물  
교단과 학제적 관점으로 세계의 관계  
자료이다. 그동안 학제적 관점 → 포교  
포접체제로 관점이 바꼈다.

가장 기본 조건인 감독에는 접수체로  
하였다.  
다음으로 여러 개의 접수를 관리하고 통합  
모의 책임자를 대접주자로 한다  
관할하기 때문에 이를 운영하기 위한 별도  
그것이 바로 육임직무로 한다.

다음으로 여러 개의 접수를 관리하고 통합  
모의 책임자를 대접주자로 한다  
관할하기 때문에 이를 운영하기 위한 별도  
그것이 바로 육임직무로 한다.

##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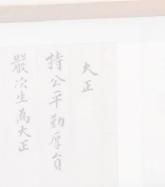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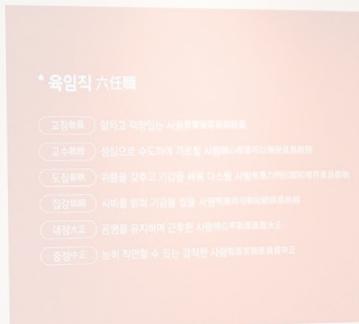
## 정의와 인권의 기록 민주주의의 뿌리가 되다

술한 진압에도 굴하지 않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지향하며 억압적·차별적인 제도를 철폐하고자 했던 모습이 담긴 기록



소모사실 | 1894~1895년 | 27cm × 30cm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 지역별 관련 기록물

### 순회전시 개막 지역별 관련 내용이 담긴 기록물

장흥: 연파집, 순무선봉진등록, 양호우선봉일기

광주: 겸산유고(금성정의록), 난파유고

남원: 순교약력, 남원 종리원사 부 동학사



## 아카이브

### 20건의 동학농민혁명 기록물 디지털화

## 에필로그

### 혁명의 기록을 마음에 되새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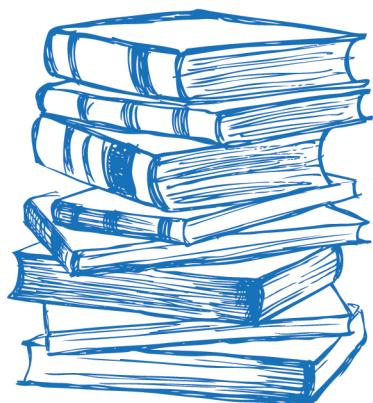
민주·평등·인권의 가치가 담긴 세계기록유산

## 나라 없는 시대, 문학으로 길을 묻다

동학농민혁명의  
흔을 품은 소설가 이광재



오랜 기간 '동학농민혁명'을 주제로 작품 활동을 해온 이광재 작가. 그는 2025년 정읍시가 주관한 '동학농민혁명대상'을 수상 하였다. 문학적 상상력과 사료에 근거한 역사소설로 문단은 물론 다양한 독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지면에서는 그의 문학 세계와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깊은 사유를 '녹두꽃' 독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한다.



이광재 작가를 인터뷰하기 위해 준비하면서 부담이 컸다. 한식 전문가를 집에 초대해 저녁상을 차리는 기분이었다. 자칫 정성껏 차린 음식이 맛의 깊이를 담아내지 못할까 염려스러웠다. 이런 두려움을 안고 작가 이광재를 만났고, 이제 그를 『녹두꽃』 독자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한다.

우리가 만난 작가 이광재는 이제 막 예순을 넘겼지만, 여전히 가슴 뛰는 청년이다. 호남형 짧은 머리 덕분에 외모도 청년처럼 보인다. 소설가로서 20년 넘게 동학농민혁명을 주제로 역사 속에서 미래를 바라보며 글을 써온 그는, 동학의 정신과 세계를 움켜쥐고 살아왔다.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오랫동안 특정 장소나 주제를 작품으로 다루는 경우가 많다. 그것이 곧 문화예술적 자산이 되고, 가치 선점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이광재는 대중적 인기나 명예와는 거리가 있는 ‘동학농민혁명’이라는 주제를 부여잡고 있다. 문학적 명성을 쌓기에 적합한 소재라고 보기 어려운 동학농민혁명에 왜 이토록 천착하는지 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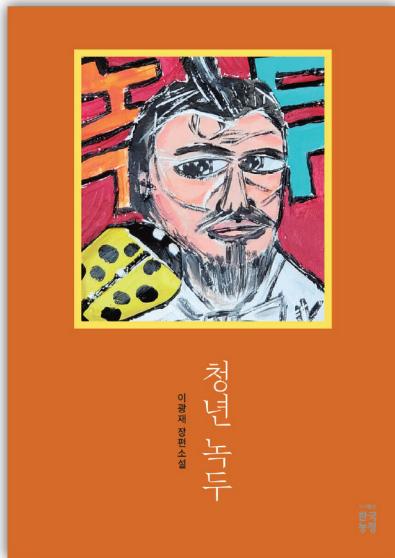
“동학농민혁명은 과거의 지나간 사건이 아니라 인류 미래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품고 있습니다. 서구적 이성 세계, 서구 문명 세계의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하고, 사상계와 문학계에 인류 앞날의 새로운 대안을 가져올 수 있는 철학이자 실천 운동이기 때문입니다.”

동학농민혁명에 대해 이처럼 깊은 철학적 사유를 가진 그가 최근 장편소설 『청년녹두』를 완성해 세상에 내놓았다. 전봉준 평전 소설인 『봉준이 온다』, 혼불문학상을 수상한 『나라 없는 나라』에 이어, 동학농민혁명을 주제로 한 또 하나의 작품이다. 『청년녹두』 출간 이후 여러 강연과 원고 요청 등으로 바쁜 그를 7월의 폭염 속에서 만났다.

동학농민혁명 대상  
혼불문학상

수상자 **이 광 재**





### 청년녹두(2025)

『청년녹두』는 전봉준, 김개남, 김덕명, 송희옥 등 1894년, 새로운 세상에 대한 희망으로 한반도를 들끓게 만든 주역들의 청년 시절을 다루고 있다. 작가는 이 소설을 위해 방대한 사료를 읽고, 논문과 지리지, 풍속 자료를 뒤적이며 수년을 준비하였다. 또한, 강화도, 전북, 부산 등지를 직접 답사하고, 사람들이 잘 쓰지 않는 지역어까지 되살렸다.

“표준어로는 담을 수 없는 삶의 뉘앙스가 있습니다. 사라지는 언어는 곧 사라지는 세계입니다. 작가는 언어의 기록자이기도 합니다.”

그는 이런 사료와 답사를 거친 탄탄한 역사적 사실 위에, 19세기 후반 한반도 남쪽 땅 사람들의 삶을 풍부한 작가적 상상력으로 그려냈다.

이 소설은 훗날 혁명의 주역이 되는 인물들이 10대의 어린 시절부터 20대 청년으로 성장해 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소설 속 청년들은 조선의 부패와 불의, 이양선의 침입 속에서 과거시험을 준비하고, 결혼을 하고, 부모와 갈등을 겪는다. 나라의 위기와 백성의 고단한 삶을 목도하며, 새로운 사상과 인간적 고뇌, 삶의 방향을 고민해 나가는 이들의 이야기는 한 편의 깊은 성장 드라마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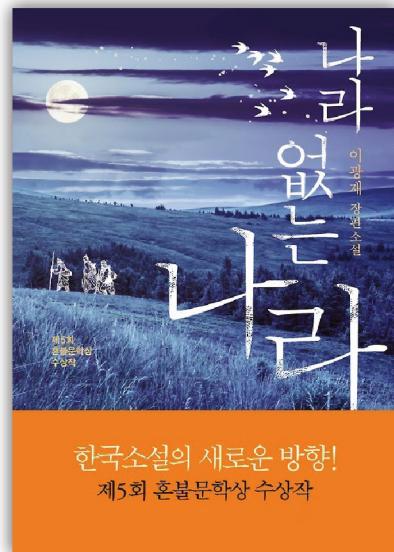
매관매직으로 정통성을 상실한 19세기 후반의 난장판에 가까운 과거 시험장 묘사, 혁명 과정에서도 담대한 지도자였던 김개남이 주도한 ‘돼지 서리’ 장면, 젊은 청년들의 연애 이야기는 읽는 재미가 쏠쏠하다. 과거시험을 포기하며 스승과 논쟁하는 전봉준의 모습은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과 신념을 지닌 젊은이의 밀도 있는 논리와 주장을 보여준다. 작가는 이 장면을 읽고 눈물을 흘렸다는 독자의 사연을 많이 받았다고 한다.



또한 강화도를 수시로 침탈한 외국 군대(이양선)와 조선 정부군의 전투 장면, 조선 정부의 무능, 그리고 목숨을 걸고 저항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처럼 생생하다. 이러한 외세와의 전투 장면은 『나라 없는 나라』로 이어진다.

소설 『나라 없는 나라』는 1894년 7월 일본군의 경복궁 침탈 당시, “맞서 싸우지 말라”는 고종의 지시에 “이것은 나라가 아니다”라며 군복을 찢고 총을 버린 한 군인의 일화에서 비롯되었다. 이 이야기는 실제 평안도 사료에 기록된 사건이다. 작가는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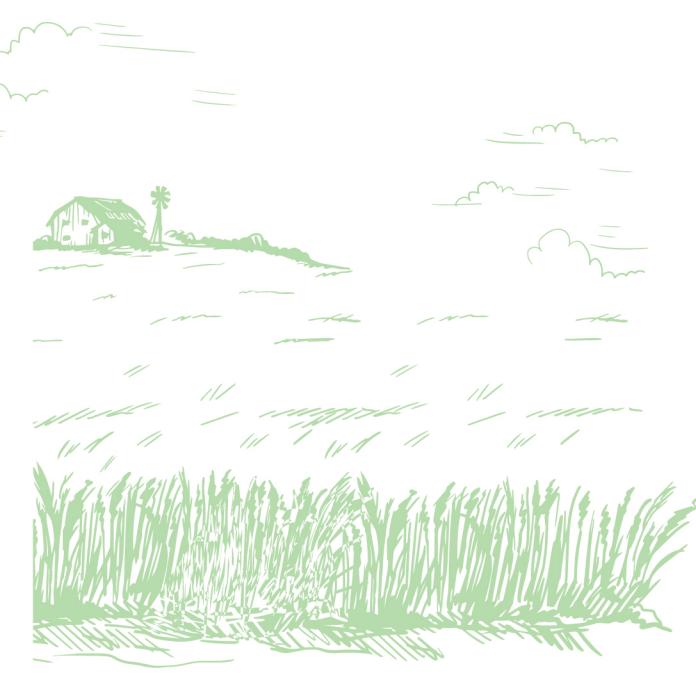
“2024년 12월 3일, 헌법을 위반한 계엄 선포 이후 국회에 선 젊은 군인들의 눈빛에서 저는 1894년 그 외침을 다시 봤습니다. ‘이것은 나라가 아니다’라는 말이 시간과 시대를 가로질러 살아 있는 것이죠.”



나라 없는 나라(2015)

2024년 12월 3일 헌법을 위반한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에 선 젊은 군인들의 눈빛과 행동에서 그는, 국민을 지켜야 할 군인이 부당한 명령 앞에서 소극적으로나마 저항했던 그들의 마음속에도 “이것은 나라가 아니다”라는 1894년의 울부짖음이깃들어 있다고 보았다.

도발적인 제목 『나라 없는 나라』에 대해 작가는 “백성을 지키지 못한 군주와 권력 놀음에 빠진 나라를 더는 나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나라라는 형식은 있었지만, 나라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했던 국가 부재의 시기였습니다”고 말한다. 그리고 슬프게도 우리는 2016년 촛불혁명 때도 “이것이 나라냐”는 외침을 했고, 윤석열 탄핵 국면에서도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자”고 외치며 반복된 퇴행을 겪었다.



작가 이광재는 문학의 물질화, 상업화를 경계한다. “모두가 속도전으로만 가고 있는 현실에서, 다시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겠다는 개벽의 정신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아무리 대응을 잘하더라도, 하루 500mm의 극한 폭우 속에서는 삶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 그는 “지금의 물질문명은 생태계 전체가 아니라 인간만을 위한 속도전이며, 결국 인류를 파괴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다”고 단언한다.

그는 이 위기를 넘는 해법으로 19세기 조선에서 태동한 동학 사상에 주목한다. “오심즉여심(吾心卽汝心), 즉 내가 너이고 네가 나라는 영성의 세계의식이 지금의 위기를 구할 방향이라 생각합니다.”

서구의 개별화·이성 중심 세계관과 달리, 인내천 사상을 바탕으로 한 동학의 철학. 모든 인간이 하늘이며 모두가 연결된 존재라는 인식이야말로 오늘날 ‘가장 오래된 미래’라는 믿음이다.

이광재는 “서구 문명이 과학기술과 종교, 이상을 들고 들어온 19세기 후반, 우리는 그 이면에 있는 약소국 침탈과 공동체 파괴를 이미 겪었습니다. 동학은 그때부터 그것을 뛰어넘는 철학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고 말한다.



그는 젊은 시절 동학농민혁명을 처음 접했을 때는 계급적 관점에서 접근했지만, 지금은 그것이 계급을 뛰어넘는 더 큰 세계의 이야기였음을 깨달았다고 말한다.

“문학이 경지에 이르면 기존 관점을 뛰어넘는 큰 세계가 보입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그에게 현재 구상하고 있는 작품이 있는지 물었다. 그는 얼마 전 작가 황석영과 나눈 이야기를 전했다. 황석영 작가는 80세가 넘은 고령이지만, 앞으로 세 편의 밀도 있는 작품을 쓰고 싶다는 계획을, 마치 본인 스스로 꼭 지켜야 할 약속처럼 말했다고 한다. 이제 60을 갓 넘긴 이광재는 선배 작가의 말에 자극을 받아, 밀도 있는 작품을 만들기 위해 매일매일 치열하게 사색한다고 한다.

사색을 그저 명태리는 것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과정이라고 말한다. 머릿속에 작품 하나를 붙잡고 수없는 상상과 스토리를 고민하고, 관련 공부를 하며, 자료를 읽고, 현장을 답사한다. 어쩌면 컴퓨터 앞에 앉아 글을 쓰는 건 이미 완성된 생각을 단순히 두드리는 작업이라 오히려 편하다고 한다.

그가 구상하는 다음 작품은 김구 선생에 관한 이야기이다. 1945년 해방 전후, 극심한 좌우 대립과 이념적 선택이 강요되던 시기. 그 혼란 속에서도 김구 선생은 오직 문화강국을 꿈꿨다. 모두가 군사적·경제적으로 더욱 강력해지는 부국강병을 꿈꾸던 시대에, 김구는 오직 첫째도, 둘째도 그리고 셋째도 ‘문화적으로 높은 경지의 나라’를 꿈꿨다.

이광재는 이와 같은 사유의 배경에는 결국 김구가 젊은 시절 경험한 동학의 정신과 세계관 때문이라고 확신한다. 순간 이제라도 잘 팔리는 위인전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스쳤지만, 역시 작가 이광재는 김구를 통해 다시 동학 사상으로 돌아왔다. 동학농민혁명을 대표하는 작가다운 귀결이다.

이광재의 문학은 여전히 현재를 향한 질문이며, 미래를 향한 사색이다. 위인전에 늘 등장하는 김구 선생을 통해 동학농민혁명을 더 널리 알리고, 그의 문학적 성취도 더욱 빛나길 기대한다. 이 부족한 글이 그 깊은 사유의 세계에 조금이나마 다가가는 문이 되길 바란다.

(대담 및 정리: 기념재단 기획운영부장 최두현)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제6기 이사회 출범 신순철 이사장 연임... 각계 전문가와 함께 혁명정신 계승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제6기 이사회가 3년 임기로 2025년 5월 27일 공식 출범하였다. 제5기에 이어 신순철 이사장이 연임하고, 신임 이사 10명이 새롭게 합류하였다.

지난 6월 23일 열린 제6기 제1차 이사회에서는 신임 이사 간 상견례를 비롯해 기념재단의 주요 사업 및 예산 보고가 이루어졌다. 또한 2026년 신규사업 계획과 주요 현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 제6기 제1차 이사회 안건

- ▶ 동학농민혁명 전국화 및 세계화 사업 추진 방안
- ▶ 2026년 국가기념식 서울 개최 추진
- ▶ 유네스코 등재 동학농민혁명기록물 홍보 및 전시 사업 강화
- ▶ 유네스코 기록관 건립
- ▶ 기념단체 지원 확대 및 국외 온라인 교육 강화

이날 회의에는 신순철 이사장을 포함한 9명의 이사와 2명의 당연직 이사, 감사 등 총 13명이 참석하였다. 신순철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기념재단이 출범한 지 벌써 15년이 되었다.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깊은 애정과 각 분야 전문성을 갖춘 분들을 이사로 모시게 되어 기쁘다. 앞으로 명예회복, 전국화, 세계화를 위한 기념재단의 사업에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제6기 이사회는 동학농민혁명의 기념과 추모를 넘어서, 혁명의 정신을 오늘의 사회적 가치로 되살리고 미래 세대에 계승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동학농민혁명이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닌 민주주의·인권·평등이라는 보편 가치로 자리 잡도록 하는 데에 각 이사들의 역량이 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제6기 이사회 명단

- 신순철 이사장
- 정탄진 동학농민혁명유족회 회장
- 송옥희 동학농민혁명유족회 사무총장
- 안경엽 남원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회장
- 김선덕 논산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회장
- 정정숙 경기도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회장
- 신상효 전남 문화유산위원회 위원
- 왕현종 연세대학교 역사문화학과 교수
- 이해은 숙명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 박주영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산업연구실장
- 김갑수 충북문화재단 대표이사
- 이정미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관(당연직)
- 안승섭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사무처장(당연직)
- 김태훈 정인회계법인 상무이사(감사)

## 세계와 함께하는 동학농민혁명의 가치 주한외국인 유네스코 문화유산 탐방 기념관 방문



지난 6월 6일~6월 7일,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K-유네스코 어드벤처: 주한외국인 유네스코 문화유산 탐방'이 정읍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행사에서 주한외국인 20명은 동학농민혁명기념관과 무성서원 등 정읍시의 유네스코 문화유산을 답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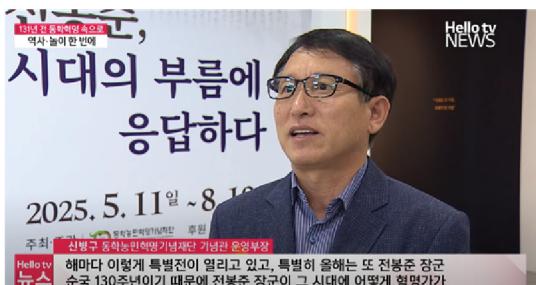
'K-유네스코 어드벤처' 활동 영상은 QR코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일 차인 6월 7일, 참가자들은 기념관을 방문하였다. 김미경 해설사(기념재단 기념사업부)의 영어 해설과 함께 기념관 전시를 관람하고 기념공원을 둘러보았다. 이 과정에서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와 시대정신을 깊이 이해하였다고 한다. "교과서 속 역사가 살아 움직이는 듯하다", "한국 민주주의의 뿌리를 알게 되어 뜻깊다"는 참가자들의 소감이 이어졌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은 이번 방문이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의 가치를 알리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고 밝혔다. 기념재단은 앞으로도 많은 방문객이 동학농민혁명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전시와 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 전봉준 순국 130주년 기념 특별전, 어린이 체험 교육과 함께한 현장 스케치



출처: LG헬로비전 Hello tv NEWS

지난 5월 11일부터 8월 10일까지, 동학농민혁명기념관에서는 전봉준 순국 13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전 "전봉준, 시대의 부름에 응답하다"를 열었다. 이번 전시는 전봉준의 삶과 정신을 깊이 있게 재조명하며 많은 관람객의 관심을 받았다.

LG헬로비전 Hello tv NEWS 취재 영상은 QR코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유치원과 어린이집 단체를 대상으로 한 특별전 연계 교육 프로그램이 함께 운영되어, 어린이들이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와 그 정신을 직접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마련되었다. 보영유치원 어린이는 "만석보 미는 게 재밌었어요."라고 소감을 전하기도 하였다.

최근 LG헬로비전 Hello TV NEWS에서는 이 특별전과 교육 프로그램 현장을 직접 취재하며, 기념재단이 지역사회와 미래 세대에 전하는 의미 있는 활동을 소개하였다. 이번 방송은 기념재단의 노력과 가치를 더욱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지역별 활동과 성격 심층 탐구

2025년 정읍 동학농민혁명 학술대회



지난 6월 25일, 정읍시가 주최하고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연구소가 주관한 2025년 정읍 동학농민혁명 학술대회가 기념재단 교육관에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지역별 활동과 성격”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참여자 등록과정

과 그 의의(이병규, 기념재단 연구조사부장), ▲전북 지역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통계적 구조와 역사적 함의(박정민, 전북대학교 교수), ▲전라도 서남부지역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활동과 성격(김희태, 전 전라남도 문화재전문위원), ▲충청 지역 동학농민혁명 등록 참여자의 활동과 성격(김양식, 기념재단 연구소장), ▲경상도 지역 등록 참여자의 활동과 특징(신진희, 경국대학교 강사), ▲경기·강원·황해지역 동학농민군 참여자의 활동과 성격(조재곤, 서강대학교 연구교수) 등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연구소에서는 이번 학술대회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술총서를 발간하여 연구 가치를 널리 확산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 제24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참여자 60명, 유족 73명 등록 심의, 의결



지난 7월 22일, 기념재단 교육관에서 제24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는 신순철 위원장(기념재단 이사장)을 비롯하여 ▲구선희(전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관),

▲김춘성(천도교 선도사), ▲배항섭(성균관대학교 교수), ▲정탄진(사단법인 동학농민혁명유족회 회장), ▲이정미(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관, 우선희 사무관 대리 참석) 위원이 참석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총 67건의 안건이 상정되었으며, 그중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60명과 유족 73명이 심의, 의결되었다.

이로써 2004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지금까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는 총 3,973명, 등록된 유족은 13,834명에 이르게 되었다.

## 동학농민혁명, 연구를 넘어 예술로 확장하다

### 2025년 동학농민혁명 연구·창작자 워크숍 성황리 개최



첫째 날 세미나



둘째 날 기념공원 답사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연구소에서는 지난 6월 26일부터 6월 27일까지 이틀간 기념재단 및 황토현권역 어울림센터에서 2025년 동학농민혁명 연구·창작자 워크숍을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워크숍은 기존 '신진연구자 워크숍'에서 문화예술 전반으로 참여 범위를 넓혀 명칭을 변경해 진행되었다.

워크숍에는 연구자와 예술인 등 80여 명이 참석해 예년보다 높은 관심과 참여 열기를 보여주었다.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워크숍은 첫째 날 세미나와 둘째 날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및 유적지 답사로 구성되었다. 세미나에서는 중견·신진연구자 발표와 박홍규 화백의 강연, 종합토론이 진행되었다.

김양식 연구소장은 "이번 워크숍은 연구자는 물론 미술, 음악, 방송 매체 등 다양한 분야의 문화예술 창작자들이 폭넓게 참여하여 매우 뜻깊다"며,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동학농민혁명이 학술 연구뿐 아니라 예술로 승화되어 대중에게 쉽게 다가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 동학농민군, 법정에서의 마지막 투쟁

2025년 재단 정기 학술대회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연구소는 7월 24일 재단 교육관에서 '재판자료로 본 동학농민군의 활동'을 주제로 정기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대회는 1894년 갑오개혁으로 도입된 근대 사법제도가 동학농민군에게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조명한 것이다. 도면회(대전대학교 명예교수)는 『사법품보』를 통해 동학농민군의 다양한 활동 양상을 분석하였다.

왕현종(연세대학교 교수)은 동학농민군 처벌이 전근대적 학살에 가까웠으며, 근대법의 보호에서 철저히 배제되었다고 지적하였다. 조재곤(서강대학교 연구교수)은 대한제국 법부 자료 분석을 통해 특히 황해도 지역을 중심으로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동학농민군의 활동상을 발굴하였다. 종합토론에는 ▲한보람(청주교육대학교), ▲김기성(군산대학교), ▲김향기(독립기념관), ▲유바다(고려대학교), ▲전경복(한국학중앙연구원), ▲배항섭(성균관대학교) 등이 참여하였다. 김양식 연구소장은 "근대 사법제도의 편파성을 밝히고 미발굴 동학농민군을 새롭게 확인한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발표 논문을 학술총서로 발간할 계획임을 전하였다.

## 세계에 새겨진 혁명의 기록, 새로운 여정의 시작

동학농민혁명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제1차 순회전 개막식



순회전 개막식을 열고 순회 여정을 시작하였다.

이번 전시는 2023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장흥을 시작으로 광주·순천·남원으로 이어진다. 개막식에서는 전시 해설과 더불어 장흥에서 동학농민군을 이끌었던 여장군 이소사를 주제로 한 단막극이 공연돼 큰 호응을 얻었다. 관람객들은 기록물 속에 담긴 평등·정의·인권·평화의 가치를 직접 체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신순철 기념재단 이사장은 "이번 전시가 동학농민혁명의 기록을 되새기고, 인류와 함께 나눌 소중한 가치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향후 전국 순회 확대 계획을 밝혔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은 8월 18일 장흥동학농민혁명기념관에서 '세계에 새겨진 혁명의 기록' 제1차

## 부안 동학농민혁명, 세계로 가다!

2025년 부안 동학농민혁명 학술대회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연구소는 8월 20일 부안예술회관에서 '부안 동학농민혁명, 세계로 가다!'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었다.

학술대회는 ▲신영우(충북대학교 명예교수)의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원도연(원광대학교 교수)의 부안 백산성지 조성 및 세계시민혁명의 전당 건립 의의와 활용방향, ▲유바다(고려대학교 교수)의 세계시민혁

명으로서의 동학농민혁명 위상 고찰, ▲박준성(역사 학연구소 연구원)의 동학농민혁명 '백산대회'의 실제와 장소성, ▲전경목(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의 근대전환기 부안의 상황과 새로운 인간형의 출현 등 의 발표가 이어졌다.

종합토론으로는 ▲홍성덕(전주대학교 교수), 김대보(원광대학교 교수), 조재곤(서강대학교 연구교수), 김경성(부안문화원 사무국장) 등이 참여하였다.

이번 학술대회는 부안 백산성지 조성 및 세계시민혁명의 전당 건립 사업의 배경과 당위성을 검토하고, 세계시민혁명으로서 동학농민혁명을 고찰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 근대의 문턱에서 심판받은 혁명

『동학농민혁명 신국역총서 17』 발간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연구소가 『동학농민혁명 신국역총서 17』을 발간하였다. 이번 총서는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이 소장하고 있는 법부(法部) 기안(起案) 가운데,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동학농민혁명 신국역총서 17』은 QR코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재판기록을 발췌·번역하여 원문과 함께 역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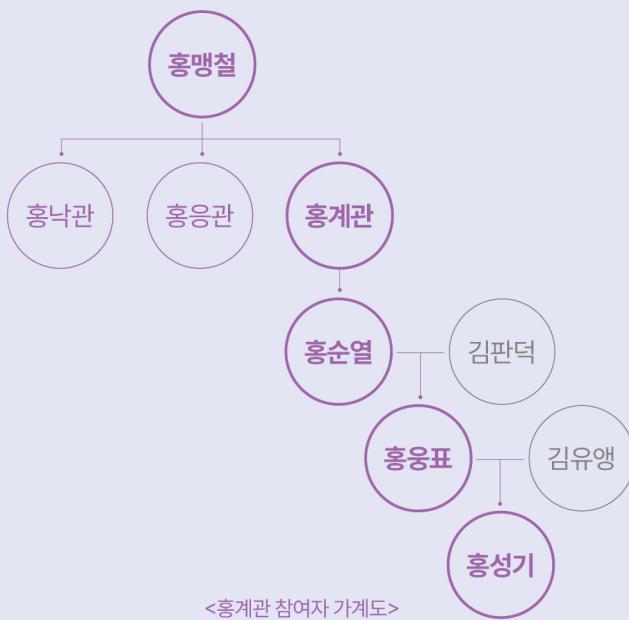
법부는 갑오개혁 이후 사법제도를 총괄한 중앙행정 기관이며, 기안(起案)은 행정·사법 문건을 뜻한다. 이번 자료에는 동학농민군 지도자들의 활동과 '동비여당(東匪餘黨)'으로 지목된 이들의 동향, 참여자들의 체포와 판결 기록 등이 담겨 있다.

특히, 이번 총서는 근대 사법제도가 동학농민군에게 불공정하게 적용되었음을 보여주며,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의 존재를 새롭게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발굴·번역했다는 점에서 주목 할 만하다.

# 손으로 가린 입, 동학농민혁명의 비밀스러운 기억

홍성기,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홍계관의 증손자

날짜 2025. 7. 15.(화)  
장소 전주 추담판소리보존회  
참여자 홍계관(1867. 6. 12. ~ 1910. 8. 10.)  
유족 홍성기(홍계관의 증손자)



홍계관 선생은 동학농민혁명 당시 '예인 부대'를 이끌며 완산칠봉 전투 등 주요 전투에서 활약하였다. 그러나 체포를 피하기 위해 가족과 함께 철저히 신분을 숨겨야만 했다. 그의 증손자 홍성기 유족은 이러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의 용기와 헌신, 그리고 집안이 지켜온 비밀스러운 역사를 회고하며, 선조들의 희생과 정신을 기록하고 기념하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 가치를 후세에 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Q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동학농민혁명기  
념재단 소식지『녹두꽃』독자분들께 인사와 소개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홍성기입니다. 동학농민혁명 참  
여자이신 홍계관 어르신의 4대손이자, 그의 후손인  
국악인 홍옹표(예명 홍정택)의 6남매 중 막내로 태  
어났습니다. 제40회 전주대사습들이 전국대회에서  
명고수부 장원을 수상한 이후로, 고수로서 국악인  
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Q 증조부이신 홍계관 선생님은 광대집단 혹은  
무부병(巫夫兵)이라 불리는 '천민부대'를 이끄셨던  
독특한 이력의 지도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분이셨는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증조부이신 홍계관 어르신을 이야기할 때, 친형 홍  
낙관 어르신을 언급하지 않고서는 그 당시 상황을  
온전히 설명 드리기 어렵습니다. 두 분은 아버님이  
신 홍맹철 고조부님과 함께 동학농민혁명 당시 '재  
인 부대'를 이끌었습니다.

규장각에 소장된 『침보(牒報)』에 따르면, 홍낙관  
어르신은 수접주(首接主)로 기록되어 있고, 그 아버

님이신 홍맹철 어르신은 선봉대장, 동생인 홍옹관  
·홍계관 어르신과 사촌동생인 홍한관 어르신은 각  
기 접주로 활동하셨다고 합니다. 홍낙관 어르신이  
본래 재인이셨기 때문에 초기에는 창우(倡優, 광대)  
나 무부(巫夫, 궂판에서 무당을 도와 반주를 담당  
한 예인)와 같은 예인들이 주축이 되어 부대를 구  
성했습니다. 그런데 점차 그 세가 커지면서 평민,  
선비들까지 함께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들 부대를 '예인 부대'라 부르  
고 싶습니다. 예인이라는 이유로 천대받던 분들이  
동학농민혁명에 나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동학농민혁명에서 지향한 '사람이 하늘이  
다'라는 정신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  
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예인 부대의  
존재와 용기를 떠올릴 때마다 정말 큰 자부심이  
듭니다. 그리고 그분들뿐 아니라 수많은 동학농민  
혁명 참여자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민주주의도 가능했다  
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고, 또 벅찬 마음  
이 듭니다.



첩보  
(제공: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Q 홍계관 선생님과 함께 활동하신 홍낙관 선생님, 그리고 아버님이신 홍맹철 선생님에 관한 기록도 많은데요. 그분들과 함께 홍계관 선생님께서 동학농민혁명 당시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는 없습니다. 다만 여러 기록들을 보면, 홍낙관 어르신과 홍계관 어르신께서 손화중 포에서 크게 활약하셨다는 내용이 자주 등장합니다. 홍낙관 어르신이 이끄셨던 예인 부대는 백산에 집결한 이후 황토현 전투, 황룡강 전투, 전주성 전투를 거치며 손화중의 척후 병으로 활동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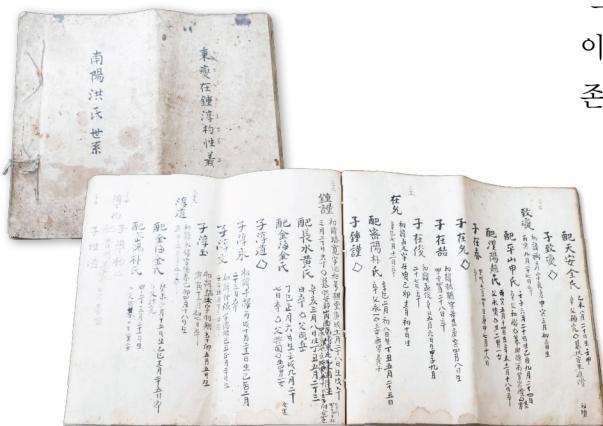
그러나 완산칠봉 전투에서 선봉대장이셨던 홍맹철 어르신께서 안타깝게도 전사하셨습니다. 이후 홍낙관 어르신은 전봉준, 손화중, 김개남, 최경선, 김덕명 등과 함께 체포되어 서울로 압송되셨다고 합니다. 다행히 홍낙관 어르신은 말주변이 좋아 살아남으셨고, 홍계관 어르신과 함께 피신하신 걸로 보입니다.

Q 완산칠봉 전투는 가족분들께도 큰 상처로 남았을 것 같습니다. 당시 상황이나 홍계관 선생님의 심정에 대해 전해 들은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제가 어렸을 때, 홍순열 할아버님께 자주 들었던 이야기 중에 홍맹철 어르신에 대한 말씀이 많았습니다. 할아버님께서는 홍맹철 어르신이 정말 대단한 분이셨다고 하시며, 예인 부대의 활약상과 함께 관군과 동학농민군이 대치하던 중 완산칠봉 전투에서 총에 맞아 전사하셨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나중에는 칼에 의해 목이 잘렸다는 설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하튼 당시 홍맹철 어르신이 부상을 입자 적들이 “홍장군을 잡았다”고 외쳐서 우리 동학농민군이 흩어졌다고 합니다. 그때 홍낙관 어르신인지, 홍계관 어르신인지는 모르겠지만 두 분 중 한 분이 아버님 이신 홍맹철 어르신을 안으려 하자, 홍맹철 어르신이 아들을 발로 차며 “후일을 도모하거라”는 말을 남기셨다는 이야기를 홍순열 할아버님께 직접 들었습니다.

그 시절의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 아프기도 하지만 이분들의 희생과 정신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존재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남양홍씨세계

Q 동학농민혁명 당시 홍계관 선생님은 운 좋게  
도 체포를 피하셨습니다. 이후의 행적에 대해 알고  
계신 바가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당연히 잘 모릅니다. 홍순열 할아버님께서는 동학농민혁명에 대해 거의 말씀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금기시하셨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이라는 말 자체를 꺼내신 적이 없고, 다만 완산전투 대해서만 아주 조심스럽게 언급하셨습니다. 그마저도 늘 손으로 입을 가리시며 “비밀이다”라고 하시던 모습이 기억에 남아있습니다.

아마도 그때는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사실을 철저히 숨겨야 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동학농민혁명을 연구하신 손태우 교수님과 아버님께서 우리 집안이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밝혀내기 위해 부안 일대의 읍사무소와 면사무소를 직접 돌아다니며 할아버님 함자 ‘홍순열’이라는 이름을 찾아 나섰습니다. 두 곳에서 ‘홍순열’이라는 이름이 확인되었지만 한자가 달랐습니다. 아마 이사를 다니시면서 두 군데에 기록이 남은 것 같은데, 출생연월일이 일치해 같은 인물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쓰면서 한자를 틀릴 리가 없잖아요. 당신 자신도 얼마나 무서웠으면 이름을 바꿨을까요. 참 안타까웠습니다.



홍성각  
홍낙관 참여자의 후손

홍성기  
홍계관 참여자의 후손

Q 혹시 아직도 집안 내에서 동학농민혁명 참여 사실을 터부시하는 분위기가 남아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 경험하신 바를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가까운 예로 제 사촌 누님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분은 아직까지 **동학농민혁명 유족 등록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등록 요건이 충족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안의 과거를 드러내는 것 이 부끄럽다며 끝내 등록을 미루고 계십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조선시대에 우리 선조가 음악을 했다는 사실과 큰무당이었던 '당골네'와 결혼했다는 집 안 내력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예전에는 음악을 하거나 무속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천하게 보는 인식이 강했고 실제로도 사회적으로 많은 차별과 멸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사촌 누님은 그 이야기를 꺼내는 것조차 꺼려하시고, 유족 등록을 하면 그런 내력이 공식적으로 기록에 남을까 두렵다고 하셨습니다. 본인이 국악을 전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거에 대한 낙인과 수치심이 여전히 그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사촌 누님을 보면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했던 분들과 그 후손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사회적 천대와 편견 속에서 살아왔는지**, 그리고 그 상처가 아직도 가시지 않았다는 걸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과거의 고난은 단순히 역사 속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 우리 공동체 속에서도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분들의 삶과 정신이 제대로 기억되고 기록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가문 전체가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려서부터 부모님께 효도하고 나라에 충성하며 친구를 신뢰하라는 가르침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아마도 우리 선조들 역시 이러한 삶의 태도와 가치를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배우며 자라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위태롭고 백성들이 고통받는 상황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것은 아닐까요. 억울하고 참혹한 현실을 외면하지 못해, 결국 자신과 가족, 마을 전체가 함께 일어설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 생각합니다. 단순한 정치적 이유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답게 살고자 했던 신념과 양심이 우리 가문을 **동학농민혁명으로** 이끈 근본적인 이유였다고 믿습니다.

Q 선생님 가문에서 국악인이 많이 배출된 것도 타고난 영향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아버님 이신 홍옹표 선생님께서는 국악 분야에서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셨는데, 이에 대해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버님은 1921년생이십니다. 저를 마흔 후반에 늦둥이로 보셨는데, 그만큼 저를 정말 많이 예뻐해 주셨습니다. 아버님께서는 1986년부터 1991년까지 전라북도 도립국악원에 재직하시며 국악 교육과 공연 활동에 힘쓰셨습니다. 그 시절, 일반 대중들도 국악을 더 쉽고 가깝게 접할 수 있도록 애쓰셨고, 국악의 저변을 넓히는 데 큰 기여를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국악의 본고장이라 할 수 있는 전북을 끝까지 지키며 활동하셨다는 점에서, 저는 아버님을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홍옹표  
홍성기 유족의 부친

김유앵  
홍성기 유족의 모친

우리 가문은 예로부터 국악과 인연이 깊은 집안입니다. 국악인이 참 많이 배출되었는데, 아마도 과거 선조들로부터 내려온 기질과 감성이 자연스럽게 이어져 온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버님이신 홍옹표를 비롯해 홍두환 큰아버님, 아버님의 사촌동생 이신 전정민 님, 홍성덕 사촌누님, 조카인 김세미 등 여러 국악인이 집안에서 나왔고 지금도 그 전통을 이어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흐름을 보고 있으면, 예술과 공동체를 향한 책임감이 단순한 개인의 길이 아니라 우리 가문 전체의 정신이자 유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Q 선생님께서 직접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 신청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족 신청은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홍순열 할아버님께서 동학농민혁명에 관한 이야기를 해 주시길 했지만 어렸던지라 그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할아버님께서 늘 손으로 입을 가리시며 ‘비밀’이라 하셨기에, 이 일은 평생 간직해야 할 비밀이라는 생각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20년 전, 손태두 교수님과 아버님께서 이 일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밝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이 일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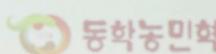
처음에는 동학농민혁명이 훌륭한 역사적 사건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손태두 교수님과 자주 이야기를 나누고 여러 학술대회에 참석하며, 우리 선조들이 이 대단한 일에 참여했다는 사실에 점차 자부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역사를 제대로 알리고 기록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족 내에서도 여전히 동학농민혁명을 터부시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홍낙관 어르신의 후손인 홍성각 형님과 힘을 합쳐, 100여 명에 달하는 후손들을 한 분 한 분 직접 찾아가 만나며 주민동록등본과 위임장을 받아 등록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 동학농민혁명 유족 등록 통지서 전달식

● 일시 | 2023년 10월 25일 14:00

● 장소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교육관



2023년 동학농민혁명 유족 등록 통지서 전달식(왼쪽부터 신순철 기념재단 이사장, 홍성기 유족, 주영채 전 유족회장)



Q 마지막 질문입니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후손으로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혹은 정부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족 신청을 하기 전부터 매년 5월 11일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식에 온 집안 사람들을 동원해 참석해 왔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서 유족에 대해 폭넓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기념재단을 방문할 때마다 저는 항상 추모관에 들러 홍낙관, 홍계관 우리 선조분들의 명패를 살펴보고, 또 새롭게 등록된 참여자분들의 명패를 한참 바라봅니다. 이분들의 희생과 수고가 결코 잊히지 않도록 우리 국민들이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정부에서도 한층 더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내년에는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꼭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식에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선생님, 귀한 말씀 들려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유족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대답자: 기념재단 기획운영부장 최두현)





# 조지아에서 온 제가 그날, 동학을 만났습니다

დღე, როდესაც მე პირადად დონგჰჰაკს შევხვდი

베비아 고가  
ბებია გოგა

안녕하세요. 조지아 출신으로, 현재 동국대학교 화학과 석사 과정에 재학 중인 고가입니다.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5년 동안 한국어를 독학하며 수많은 유산과 역사의 현장을 직접 찾아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유럽에 위치한 조지아에서 온 유학생, 고가라고 합니다. 한국에 온 지 1년 되었습니다.

გამარჯობა. მე ვარ გოგა სტუდენტი საქართველოდან, პატარა ქვეყნიდან, რომელიც მდებარეობს აღმოსავლეთ ევროპაში. უკვე ერთი წელია, რაც ვცხოვრობ სამხრეთ კორეაში.

조지아와 한국은 서로 다른 대륙에 있지만, 닮은 아픔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나라 모두 식민지배의 고통스러운 과거를 겪었고, 독립을 향한 열망으로 치열하게 싸워 왔습니다.

საქართველო და სამხრეთ კორეა, მოუხედავად იმისა, რომ გეოგრაფიულად შორს არიან ერთმანეთისგან, მე ნათლად ვხედავ ვ მსგავსებას მათ ისტორიაში. ერთ-ერთი ყველაზე თვალსაჩინო მსგავსებაა ის, რომ ორივე ერმა გამოიარა უმძიმესი ისტორიული წარსული და თავისუფელების მოსაპოვებლად გაიარა გრძელი და რთული გზა.

제가 한국에 와서 가장 깊이 감동한 문장은 김구 선생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 전 민족이 세계 무대로 발을 들여놓는 그런 시기를 맞았습니다."

이 말씀은 조지아 초대 대통령이 독립을 선포하면서 했던 말과 감정을 떠올리게 합니다. 저는 그때 태어나지 않았지만, 그 장면을 영상으로 볼 때마다 깊은 감동과 전율을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과 조지아의 역사가 결코 멀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მინდა გავიხსენო კორეის ეროვნული მოღვაწის, კიმ გუს სიტყვები: “დღეს ჩვენი ერო მსოფლიო არენაზე შედის.” ამ სიტყვებმა ჩემზე ძლიერი შთაბეჭიდლება მოახვინა.

პირადად მე, მაშინვე გამახსენდა საქართველოს პირველი პრეზიდენტის მიერ დამოუკიდებლობის გამოცხადების ისტორიული კადრები — სავსე თავისუფლებისადმი წყურვილით და სიამყით. ამიტომაც მჯერა, რომ კონკრეტული და საქართველოს ისტორიები შორს არ არის ერთმანეთისგან. მეტიც, ამ ორ ერს ბევრად მეტი აქვთ საერთო, ვიდრე ერთი შეხედვით ჩანს.

제가 한국 역사에 관심을 갖게 된 건 2020년,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멈춰 있던 시기였습니다. 우연히 을미사변을 그린 그림을 보게 되었고, 그날 이후 한국의 역사에 빠져들었습니다. 많은 시간을 독학으로 한국어를 공부하며, 한국의 역사와 문화, 전통, 한국의 '한'과 '정'을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지난 5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한국어를 공부해 왔습니다.

სამხრეთ კორეასთან ჩემი კავშირი 2020 წელს დაიწყო, როდესაც COVID-19-ის პანდემია მსოფლიო გააჩირა. ერთ ჩვეულებრივ დღეს სოციალური მედიაში შემთხვევით ვნახე სურათი, რომელიც ასანავდა კორეის დედოფლის ტრაგიკულ ამბავს. იმ დღიდან დავინტერესდი კორეის ისტორიით და ენით. დავიწყე კორეული ენის სწავლა და მასთან ერთად კულტურის, ტრადიციების და კორეელი ხალხის კეოვრების სტილის გაკნობას.

수많은 대한민국 문화유산을 직접 걸으며 만나왔지만, 그중에서도 제 마음에 가장 깊이 남은 곳, 그리고 '한국 민주주의의 시작'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던 공간은 바로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이었습니다.

სამხრეთ კორეაში ცხოვრების განმავლობაში უამრავ კორეულ კულტურულ მეცნიერებაში ბას ვეწვევ და ვნახე ძალან ბევრი რამ, მაგრამ მათ შორის ერთერთი ყველაზე ემოციური და დასამსახურებელი იყო დონგგჰაკის გლეხთა აჯანყების მემორიალური მუზეუმი (동학농민 혁명기념관).

기념관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저는 민중의 목소리와 그 외침을 마주했던 것 같습니다. 유럽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자유의 특별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더욱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동학농민혁명기념관에서 자유에 대한 뜨거운 열망을 느껴봤습니다. 하나하나의 유물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무겁고 아픈 역사였지만, 동시에 희망이 깃든 울림이기도 했습니다.

기념관은 옛날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느끼게 해주는 구성으로 되어 있어서 좋았습니다. 기념관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마치 130년 전 그날로 돌아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벽면 가득히 새겨진 백성들의 외침, 조심스럽게 전시된 유물 하나하나에서 그들의 분노와 눈물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기념관 한쪽 벽에서 "서면 백산, 앉으면 죽산"이라는 글귀와 마주하자, 그 무엇보다 무겁고 슬펐습니다. 백성들이 왜 일어섰는지를 가장 절박하게 보여주는 한마디, 그리고 지금의 저에게도 깊은 질문을 던지는 외침이었습니다. 살기 위해 모였고, 침묵은 곧 죽음을 의미했던 시대였습니다. 그 현실 앞에서 저는 잠시 말을 잃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인상 깊었던 구절은 "사람이 하늘이다"입니다. 그 말은 지금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가치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군가를 위계 아래 두지 않고, 모두가 존엄한 존재라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მუზეუმში შესვლისთანავე დამეუფლა  
განცდა, თითქოს აქ კვლავ ცოცხლობს იმ  
დროს ნალის ხმა. კედლებზე ამოტვივ  
რული სიტყვები, საგამოფენო ნივთები —  
თითოეული დეტალი ქმნიდა იმ ეპოქის  
სულს და გადმოსცემდა თავისუფლების  
სურვილს. განსაკუთრებით დამამახსოვრ  
და კედელზე დაწერილი ფრაზა: „თუ ადგ  
ები — იცოცხებ, თუ დაჯდები — მოკვდე  
ბი.“ **“서면 백산, 않으면 죽산”** მივხვდი, რომ ეს  
სიტყვები შიშთან ერთად იმედსაც  
იძლეოდა რადგან იმ დროს მხოლოდ  
ერთიანობა იყო გადარჩენის გზა.



전봉준 장군의 동상 앞에 섰을 때, 저도 모르게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그 눈빛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누구보다 강한 외침이 느껴졌습니다. 칼을 든 장군이 아닌, 백성들과 함께 죽장을 들고 앞장섰던 지도자라는 그 사실이 저를 깊이 감동시켰습니다.

그 순간 저는 손을 들어 조용히 외쳤습니다. "앞으로 직진하라!" 멈추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부터 나아가야 한다는 다짐이었습니다. 기념관을 모두 둘러본 뒤 기념관 밖으로 나섰을 때, 좀 다른 생각이 들었고 마음속으로 다짐을 했습니다.

"이 외침을 기억하는 사람이 되겠다. 이 땅에서 들린 목소리를, 우리 고향에도 전하겠다."

მუზეუმის დათვალიერების შემდეგ ლრმად დავფიქრდი. მომეცა განსაკუთრე ბული შანსი, რომ შორეული ერის მეტკვიდრეობა საკუთარი თვალით მენახა. დავინახე ტკივილი, რომელიც ძალიან წააგავდა ჩემს სამშობლოში განცდილს. ამ მომენტში ბუნებრივად მომინდა, რომ გავხდე წილი ამ ისტორიებს შორის — ვიყო ადამიანი, ვინც ამ ხმებს კორეის საზღვრებს გარეთაც გააგონებს. მუზეუმიდან გამო სვლისას საკუთარ თავს ვუთხარი:

„მე ამ ყველაფერს — თითოეულ ხმას, თითოეულ ტკივილს — ვაჩვენებ ჩემს ქვეყანას. „რათა გაიგონ, რამდენად მძიმე გზა გაიარა კორეამ თავისუფლებისთვის — და დღევანდელ დღემდე მოსას ვღელად.



## 역사를 밝히고 후학을 품은 스승 이상식 선생님을 추모하며

2025년 8월 5일, 전남대학교 사학과 명예교수이자 광주전남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대표 이상식 선생님이 별세하셨다(향년 87세). 선생님은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현대에 되살리고, 민주화운동의 실천자로서 학문과 삶을 일치시키며 우리 사회에 큰 발자취를 남기셨다.



### 민주와 평등을 삶으로 실천한 학자

선생님은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를 깊이 연구하고, 이를 현대 민주주의와 인권운동의 뿌리로 삼았다. 동학농민혁명의 평등과 정의, 민중의 권리 를 존중하는 정신은 선생님의 학문과 활동 전반에 흐르는 중심 가치였다. 특히 1980년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전남대학교 교수로서 시국선언문을 작성하고 동료 교수들과 함께 행동에 나섰으며 그로 인해 체포와 해직 등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한 행동은 선생님이 단순한 학자가 아니라, 역사적 진실과 정의를 삶으로 실천하는 지식인이었음을 보여준다.

### 역사를 오늘로 잊는 가르침

선생님은 역사학자로서의 깊은 통찰을 바탕으로, 동학농민혁명과 5·18광주민주화운동을 단순한 과거의 사건으로 보지 않았다. 오히려 오늘날의 삶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교훈으로 삼았다. 특히 선생님이 이끌었던 광주전남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는 역사적 진실을 알리고, 지역민과 시민들에게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전달하는 중요한 구심점 역할을 하였다.

### 후학과 사회를 위한 나눔의 여정

선생님은 학문적 업적뿐 아니라 사회와 후학을 위한 나눔에서도 본보기가 되셨다. 2017년 동학농민혁명 제123주년 무장기포기념제에서 받은 '제10회 녹두대상' 상금 전액을 모교 발전기금으로 기탁 하며 제자들을 위한 장학사업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2003년 정년퇴임 당시 5,000만 원의 발전기금을 전남대학교 사학과에 기탁하여 매년 학부와 대학원 각 1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게 하였다. 선생님은 "동학농민혁명의 위대한 정신이 면면히 이어져 5·18광주민주화운동을 낳았다"며, 학생들에게 그 정신을 되돌려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셨다.

### 삶과 정신이 남긴 길

이상식 선생님의 삶은 단순한 학문적 업적을 넘어 정의와 평화를 향한 끊임없는 실천의 여정이었다. 그의 유산은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현대에 되살리고, 민주화운동의 가치를 지켜 나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다.

고 이상식 선생님의 명복을 빌며, 그의 삶과 정신이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살아 숨쉬기를 바란다.

(선생님의 뜻을 기리는 후학, 임현진)



2017년 전남대학교 사학과 장학금 전달식(제공: 전남대학교 사학과)



2023년 전남대학교 사학과 장학금 전달식(제공: 전남대학교 사학과)



2025년 전남대학교 사학과 장학금 전달식(제공: 전남대학교 사학과)



## 지금, 우리에게 혁명이란 무엇인가 동학농민혁명 131주년 기념 세계혁명예술제

지난 6월 11일 전주 파랑새관에서 제5회 세계혁명예술제가 열렸다. 이번 행사는 전주시, (사)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가 주최·주관하고,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후원하였다. 세계혁명예술제는 ▲ 학술포럼, ▲ 특별전시, ▲ 전주동학농민혁명 입성식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학술포럼은 '혁명의 문학과 영화'라는 주제로, 1894년 동학농민혁명이 문학과 드라마, 그림에서 어떻게 재해석되었는지를 살펴 보았다. 박구용(전남대학교 철학과 교수)의 기조강연 「2025년 우리에게 혁명이란 무엇인가」를 시작으로, 신경수(사이닝 파크 대표\_SBS 드라마 '녹두꽃(2019)' 연출)의 「우금티가 되어 버린 남태령」, 김형수(신동엽문학관 관장 겸 시인)의 「신동엽의『서사시 금강』과 동학농민혁명」, 원도연(원광대학교 교수)의 「박태원의『갑오농민전쟁』과 전주」 발표가 이어졌다.

부대행사로는 동학농민혁명 131주년 특별초대전 "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박홍규·이기홍 초대전"이 마련되어, 6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전주동학농민혁명 파랑새관에서 전시된다.

같은 날 저녁 7시에는 전주동학농민혁명 입성식이 열렸다. 행사는 입성 행진 퍼포먼스, 풍남문 입성, 입성 포고문 발표, 전라감영 입성, 연극 퍼포먼스, 전주화약 체결 재현, 잔치 등으로 진행되었다.



전주 완산칠봉에 모셔진 무명 동학농민군 추모



학술포럼 및 전시 개회식



전주동학농민혁명 입성식

## 충청남도 예산군

혁명과 독립의 길, 춘암 박인호 선생을 기억하다  
춘암 박인호 선생 85주기 추모학술대회

7월 11일 예산군청소년복지재단 비전홀에서 '동학농민혁명과 독립운동의 큰별, 박인호선생의 삶과 사상'을 주제로 춘암 박인호 선생 85주기 추모학술대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학술대회는 (사)춘암박인호선생기념사업회 창립 1주년을 기념하여 마련된 자리로, (사)춘암박인호선생기념사업회와 충남동학농민혁명단체협의회가 주최하고,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예산군이 주관하였다. 또한, 천도교 중앙총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전국동학농민혁명연대, 전국농민회충남도연맹이 후원하였다.

춘암 박인호 선생은 동학교도로서 동학농민혁명 당시 승전목·신례원 전투를 승리로 이끌고, 홍주성 전투에도 참여하였다. 이어 3·1운동, 6·10만세운동과 신간회 활동 등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에 헌신하였으며, 그 공로로 1990년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 되었다.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춘향, 동학을 만나다  
남원시립국악단 창작 창극 「소녀춘향」 개막

남원시립국악단의 창작 창극 「소녀춘향」이 8월 1일부터 9월 27일까지 매주 토요일 저녁 남원국악 전용공연장 청아원 무대에 올랐다. 이번 공연은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남원시가 주최하고 남원시립국악단이 주관하였다.

김영태 남원시의회 의장은 "남원을 대표하는 전통문화유산 판소리 「춘향가」에 동학의 평등사상이 결합하여, 사랑 이야기를 넘어선 민중이 꿈꾸는 평등사회의 이상을 그려낸 뜻깊은 작품"이라고 평가하였다.

「소녀춘향」은 '2025 전통예술지역브랜드 상설공연'과 '문화체육관광부 로컬 100'에 선정되며 작품성과 대중성을 동시에 인정받았다.

서울특별시 국립 서울현충원에서 동학농민혁명을 말하다  
2025년 서울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학술대회

8월 17일 국립 서울현충원에서 '국립 서울현충원에서 동학농민혁명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학술대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학술대회는 서울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회가 주최하고,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과 전국동학농민혁명연대가 후원하였다.

행사는 1부 추모식, 2부 학술토론, 3부 묘역 참배로 구성되었다. 2부 학술토론에서는 서울 지역과 관련된 동학농민혁명 사적과 지도자들의 활동에 관한 논의가 주를 이루었다. 이번 행사는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참여자들의 희생과 현신을 기리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삼혁당 김영원 선생 순국 106주년 추모식



8월 26일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삼요정(三樂亭)에서 삼혁당 김영원 선생 순국 106주년 추모식이 열렸다.

삼혁당 김영원 선생은 임실 지역에서 동학농민혁명을 주도하고, 1919년 3·1 운동에 참여하여 임실을 중심으로 독립선언서를 배포하고 만세운동을 전개하다 옥중에서 순국한 구국열사다. 선생의 호 '삼혁당(三革堂)'은 동학농민혁명, 갑진개혁운동, 3·1 운동이라는 세 차례의 혁명적 실천을 뜻하며, 이는 민족의 자주독립과 새로운 세상을 향한 선생의 의지를 상징한다.

이번 추모식에는 장종민 임실군의회 의장을 비롯하여, 동학농민혁명 유족 및 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선생의 숭고한 뜻을 기렸다.

한편, 추모식이 거행된 삼요정은 김영원 선생이 후학양성을 위해 1883년 임실군 운암면에 지은 공간으로, 오늘날에도 임실 독립운동사의 상징적 공간으로 남아있다.

보도일	언론사	기사제목
2025.06.04.	전북일보	[세계기록유산이 된 '동학농민혁명기록물'] (47) 하동 방수장서목, 여산 차호 규 등 첨정, 강계 외귀방 풍헌 첨정, 강계 고산방 풍헌 첨정
2025.06.11.	전북일보	[세계기록유산이 된 '동학농민혁명기록물'] (48) 교도소출주장병성책, 선봉 진출정장졸성명급기복마실수성책, 본진별군관차출기, 친군장위영장졸실수 성책
2025.06.13	연합뉴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7월 초까지 민간 소장 유물 공개 구입
2025.06.18	전북일보	[세계기록유산이 된 '동학농민혁명기록물'] (49) 동학농민혁명을 기록한 편지 4통
2025.06.23.	전북도민일보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5일 정읍 동학농민혁명 학술대회 개최
2025.06.25.	전북일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지역별 활동 조명...정읍서 학술대회 성료
2025.06.27.	전북일보	[세계기록유산이 된 '동학농민혁명기록물'] (50) 김성규(金星圭)의 『초정집(草亭集)』과 김병휘(金炳輝)의 『연파집(蓮坡集)』
2025.07.01.	전북도민일보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025년 동학농민혁명 연구·창작자 워크숍 성황
2025.07.03.	전북일보	[세계기록유산이 된 '동학농민혁명기록물'] (51) 죄인군율성책과 물금첩기
2025.07.09.	전북일보	[세계기록유산이 된 '동학농민혁명기록물'] (52) 『순천부포착동도성명성책(順天府捕提東徒姓名成冊)』·『광양현포착동도성명성책(光陽縣捕提東徒姓名成冊)』·『광양섬계역포착동도성명성책(光陽蟾溪驛捕提東徒姓名成冊)』
2025.07.15.	전북일보	무더운 여름 박물관으로 피서 가자...동학농민혁명 박캉스 개장
2025.07.16.	전북일보	[세계기록유산이 된 '동학농민혁명기록물'] (53) 창의인명록, 서산 화변면 간월도 유회 성책, 서산 영풍창면 우길리 유회 성명성책
2025.07.21.	노컷뉴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재판자료로 본 동학' 24일 학술대회
2025.07.23.	전북일보	[세계기록유산이 된 '동학농민혁명기록물'] (54) 법부청의서, 한성부재판소 이수록, 개성재판소형명부, 한성재판소형명부
2025.07.30.	전북일보	[세계기록유산이 된 '동학농민혁명기록물'] (55) 전라도각읍소획동도수효급 장령성명병록성책(全羅道各邑所獲東徒數爻及將領姓名並錄成冊)
2025.08.06.	전북일보	[세계기록유산이 된 '동학농민혁명기록물'] (56) 순무사정보첩(巡撫使呈報牒)과 선봉진전령각진(先鋒陣傳令各陣)
2025.08.13.	장흥투데이	장흥군서 동학농민혁명 기록물 순회전 개최
2025.08.18.	서울신문	부안 동학농민혁명 가치 알린다...20일 학술대회 개최
2025.08.24.	전북도민일보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세계에 새겨진 혁명의 기록' 순회전
2025.08.31.	KBS뉴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유물 공개 구입

40 녹두꽃 다시 피다

OPEN  
09:00

카페테리아1894

CLOSE  
18:00

# SEASON

Häagen-Dazs®



NEW

아이스크림 라떼  
Ice-cream Latte

프리미엄 하겐다즈 한 스쿱이  
녹아내린 달콤한 라떼

**Ice-cream Latte : 6.0**  
**Ice-cream : 4.0**

\* 상기 이미지는 이해를 돋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CONFEE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덕천면 동학로 742

일요일 월요일 공휴일 휴무

# 2025년 교육·체험·해설 프로그램

● 녹두꽃 다시 피다 41

## 동학농민혁명을 배우고 체험하는 공간

### ○ 기념공원 교육·체험 프로그램

구분	프로그램명	대상	장소	일정		
상설	병아리 역사 탐방	유아(단체)	기념공원 및 기념관 일대 기념공원	상시		
	역사 탐방	모든 대상				
	꽃과 함께 511					
	Hello, DPR*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외국인 단체				
비상설	511 소풍	녹두장군 캠핑장 이용객	녹두장군 캠핑장 및 기념공원	9~11월		

### ○ 박물관 교육·체험 프로그램

구분	프로그램명	대상	장소	일정
특별	1894! 가보세 갑오세	모든 대상	박물관 및 기념공원	상시
	가정의 달			5월
	하계 여름나기			7월~8월
	순회전시 연계			9월
	한가위 한마당			10월
	동계 겨울맞이			11월~12월
온라인	문화가 있는 날	월별 상이	온라인(ZOOM)	3월~12월
	(국내) 1894년, 동학농민군을 만나다	초등 4~6학년		3월~11월
	(국외) 세계기록유산으로 만나는 동학농민군	재외동포		

### ○ 기념관 교육·체험 프로그램

구분	프로그램명	대상	장소	일정
관내	동학농민군의 발자취를 찾아라	모든 대상	기념관	2월~12월
관외	찾아가는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초·중·고등학생	신청학교 교실	3월~12월
답사	1894 시간여행	전북특별자치도 초·중·고등학생	기념관, 도내 동학농민혁명 관련 유적지	5월~11월
	녹두꾸러기 탐험대	전북특별자치도 초등학생(5학년)		4월~5월

### ○ 해설 프로그램

구분	내용	대상	일정
기념공원	30만m <sup>2</sup> 부지에 조성된 동학농민혁명 관련 조형물과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해설사와 함께 산책하며 볼 수 있습니다.		
박물관	동학농민혁명에 담긴 인류 보편적 가치와 세계사적 의미를 유물, 영상, 패널 등으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모든 대상 (개인, 단체)	상시
기념관	기획전시, 상설전시, 어린이 전시를 통해 동학농민혁명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념공원

063-530-9406

박물관

063-530-9405

기념관

063-536-1894

자세한 내용은 기념재단 홈페이지  
(www.1894.or.kr)를 참고하세요.



## 기념공원



역사탐방  
전주학생의회



가쁜산책  
정읍역사문화투어 인플루언서



가쁜산책  
경남 밀양시 공무원



역사탐방  
완산고등학교 1학년 8개반



Hello, DPR  
세계문화댄스페스티벌 참가팀(태국)



병아리 역사탐방  
보영유치원 자두반

## 기념관



생생국가유산  
녹두장군과 함께하는 1박 2일-2차



찾아가는 기념관  
아산 음봉중학교 3학년

생생국가유산  
녹두장군과 함께하는 1박 2일-2차



생생국가유산  
상생(相生)로드, 1894-1차



생생국가유산  
상생(相生)로드, 1894-1차



답사 I  
태인고등학교

## 박물관



현대자동차노동조합



완산고등학교



관람객



생생국가유산  
상생(相生)로드



관람객

샘골어린이집

# 동학농민혁명박물관 문화가 있는 날

## 9월 내 마음의 풍등 소원을 말해봐!



- 한지 소원등 만들기
- 동학농민군의 소원, 폐경개혁안

신청일: 09월 11일(목) 오전 11시  
체험일: 09월 27일(토) 오후 2시

## 10월 평등의 땅, 평온의 요가



- 뮤지엄 요가 워크숍 클래스
- 활로현 전통자 한경체험학습

신청일: 10월 16일(목) 오전 11시  
체험일: 11월 01일(토) 오후 2시

## 11월 가자 집강소! 과자 집강소!



- 과자집 만들기
- 민·관협치기구 집강소

신청일: 11월 13일(목) 오전 11시  
체험일: 11월 29일(토) 오후 2시

## 신청바로가기



매월 신청일마다  
제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순 접수



## 6월 문화가 있는 날 동학농민군의 비밀무기, 장태

동학농민군 무기를 알아보고,  
라탄 장태 저금통 만들기

일시: 2025. 6. 28.(토) 14:00~16:00

대상: 유아~성인(37명)

장태에서 대해서 자세히 배우고, 이를 라탄  
끌어안 얹기위해 직접 만들어 봤다.  
재미있고 유익한 체험을 맛나다.

장태 사용 친액을  
영성으로 간접  
체험할 수 있어  
매우 흥미로웠다.

아이들과 부모가 함께 참여할 수  
있어 가족 단위 체험으로도 매우  
만족스러운 프로그램이었다.

1년 과정을 고려해  
체계적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이 인상적이고,  
앞으로도 계속 참여하고 싶다.



## 7월 꿈 아로새기고 꿀

동학농민군의 인장이 찍힌 기록물을  
살펴보고, 전각 수제도장 만들기

일시: 2025. 8. 2.(토) 14:00~16:00

대상: 초등학생~성인(32명)

동학농민군의 인장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자세히  
알 수 있어서 유익했다.

나인의 도장을 만들어  
보는 특별한 경험  
이었고, 평생 오랫동안  
소장하고 싶다.

도장을 치밀 때는 활동이  
재미있었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참여했다.

설명이 극에 쏙쏙 들어왔고,  
평소에 해보지 못했던 도장을  
만들어 볼 수 있어 좋았다.

도장 만드는  
법을 자세히  
알려주셔서  
쉽게 따라  
할 수 있었고,  
선생님들이  
친절했다.



## 8월 딸랑딸랑 녹두꽃 도어벨

전봉준 장군의 삶을 알아보고,  
양발목 녹두꽃 도어벨과 집강소 풍경종 만들기

일시: 2025. 8. 30.(토) 14:00~16:00

대상: 초등학생~성인(45명)

전봉준 장군과 집강소에  
대해 자세히 배울 수  
있어 감사했다.

동학농민혁명에  
대해 새롭게 알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고,  
만들기 체험이  
재미있었다.

작원들이 친절하고  
시설이 편리하고 넓어  
이용하기 편리했다.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쉽게 설명해  
주고, 전시 내용과  
연계된 체험이라  
인상 깊었다.

소자, 솔나와 함께  
녹두꽃 도어벨을  
만들 수 있는 멋진  
시간이 되었다.

# 2025년 하반기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연간 계획표



### 07

#### 기념재단 주요행사

- 7.01. 「녹두꽃」 60호 발간
- 7.19. ~ 8.31. 박물관 하계여름나기 특별 프로그램
- 7.22.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 7.24. 재단 정기 학술대회
- 7.28. ~ 29. 교원직무연수

#### 관련단체 주요행사

- 7.11. (사) 춘암박인호선생기념사업회  
춘암 박인호 선생 85주기 추모학술대회



### 09

#### 기념재단 주요행사

- 9.03.~13. 세계기록유산 등재 기념 순회전시 II\_광주
- 9.04.~05. 동아시아 민주·인권·평화 네트워크 워크숍
- 9.16. ~ 26. 세계기록유산 등재 기념 순회전시 III\_순천
- 9.16. 순천동학농민혁명 학술대회
- 9.23. 기념관 2차 특별전시 개막식
- 9.23. 기념관 운영위원회

- 9.25.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 9.27. 9월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 운영

- 9.30. 고창 동학농민혁명 학술대회

#### 관련단체 주요행사

- 9.04. ~ 05.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아시아 민주·인권·평화 네트워크  
연대회의 및 워크숍

### 11

#### 기념재단 주요행사

- 11.01. 10월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 운영
- 11.06. 김제 동학농민혁명 학술대회
- 11.20. 연구소 운영위원회
- 11.29. 11월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 운영
- 11.30. 학술지『동학농민혁명 연구』 5호 발간



## 08

### 기념재단 주요행사

- 8. 02.** 7월〈문화가 있는 날〉프로그램 운영
- 8. 18.~ 30.** 세계기록유산등재기념순회전시Ⅰ\_장흥
- 8. 20.** 부안동학농민혁명 학술대회
- 8. 22.** 언론인 초청 간담회
- 8. 25.** 2차 유물구입 평가위원회 개최
- 8. 30.** 8월〈문화가 있는 날〉프로그램 운영
- 8. 31.** 『동학농민혁명 산국역총서 17권』발간

### 관련단체 주요행사

- 8. 01. ~ 9. 27.** 남원시립국악단  
「소녀춘향」창작 창극
- 8. 17.** 서울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국립 서울현충원에서 동학을 밟하다” 학술대회
- 8. 26.** 삼혁당김영원선생추모회  
김영원 선생 순국 106주년 추모식

## 10

### 기념재단 주요행사

- 10. 01.** 『녹두꽃』61호 발간
- 10. 01. ~ 12.** 세계기록유산 등재 기념 순회 전시Ⅳ\_남원
- 10. 03. ~ 09.** 박물관 한가위 특별 프로그램
- 10. 23.** 황토현 유적 정비 학술대회
- 10. 30.** 태안동학농민혁명 학술대회



## 12

### 기념재단 주요행사

- 12. 04.**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 12. 13.** 12월〈문화가 있는 날〉프로그램 운영
- 12월 중.** 6기 제2차 이사회
- 12월 중.** 박물관 운영자문위원회

# 『녹두꽃』 60호 한 줄 후기 이벤트 당첨자



## 1. 5422님

우연하게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소식지를 접하고 어릴적 책에서 짧게 접했던 "동학농민운동" 다시금 학창시절 보다 더 관심과 진심으로 정독 하게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2. 3147님

꿈나무들의 체험활동을 통한 문화가있는날  
녹두꽃 엿보기 보기 좋습니다^^

## 3. 8010님

천번에서 동학농민혁명기념 행사참여 후 아이들과  
기념관에 갔는데 기념식 행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님의  
인사말이 기억에 남았는데 소식지에서 보니 반갑네요^^

## 4. 2912님

동학농민혁명재단에서 진행한 다양한 행사들과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참여한 사진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의  
노고로 탄생한 소식지겠구나 싶었습니다.  
좋은 간행물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5. 5595님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들이 마치 아름다운 꽃처럼  
소식지 안에서 활짝 피어나는 것 같아요!!

## 6. 1963님

소식지를 통해 전시를 보고 왔습니다.  
정읍에 이런 멋진 장소가 더 알려지길 바랄게요^^

## 7. 1597님

예부터 지금까지 민초들의 삶과 자긍심이 쭉 이어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움과 감동이 전해져 기슴한켠이  
웅장해 지난것 같았습니다.

## 8. 1992님

전문 해설사 시선으로 인상 깊었던 장소를 소개해주신  
부분이 좋았어요. 조심스레 해설사로의 꿈을 키워보고  
싶은 마음도 생겼습니다

## 9. 6446님

"잊지 않기 위해 말하고, 전하기 위해 기록하는  
이들의 실천 속에서 동학은 과거가 아닌,  
우리 모두의 현재로 살아갑니다."

## 10. 6648님

역사를 오늘과 연결하며 목소리를 담아낸 멋진 기록,  
시민들의 뜨거운 참여가 인상 깊었다.

**독자 참여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퀴즈 EVENT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과 함께하는『녹두꽃』61호 퀴즈 이벤트!  
소식지 속 내용을 바탕으로 한 퀴즈를 풀고, 정답을 제출해 주세요.

## Q. 2025년 하반기 동학농민혁명 기념관 전시 제목은?

- ① 대둔산 숨참고 정상 다이브
- ② 대둔산에서 불타오르네
- ③ 대둔산 사랑을 했다
- ④ 대둔산, 동학농민혁명 최후의 항전지
- ⑤ 대둔산 넥스트레벨 간다

당첨자 선물



이마트 모바일 금액권  
3만원권 10명

응모기간

2025. 10. 01. (수) ~ 2025. 10. 25. (토)

응모방법



01 QR코드 찍기

핸드폰 카메라로  
왼쪽 QR코드를  
찍어주세요.



02 퀴즈 풀기

QR코드를 찍어서  
열린 이벤트의 퀴즈를  
풀어주세요.



03

응모하기

이름과 이메일,  
휴대폰 번호도 같이  
작성해서 응모해주세요.

이벤트 당첨자는 개별 연락드립니다

\* 1인 1회 응모 가능하며, 이벤트 참여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완료해 주셔야 정상적인 응모가 가능합니다.

\* 경품은 이벤트 참여 시 작성해주신 개인정보로만 발송이 가능하며 잘못된 입력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는 경품 발송 목적으로만 활용되며 발송 후 모두 폐기됩니다.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유족등록 신청안내



## 1. 대상

###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 동학농민혁명에 가담하여 실제 전투에 참여한 자
- 동학농민혁명 당시 물자를 제공한 자(정보 포함) 및 노동력 제공자
- 기타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것이 명백한 자

###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유족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자녀·손자녀·증손자녀·고손자녀(외손, 외증손, 외고손 포함)



## 2. 서류 및 제출방법

### 가. 신청 서류

####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유족등록 신청서

#### ○ 첨부서류

-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각1부
- 참여자와 신청인의 유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족보)
- 신청인의 선조가 동학농민혁명참여자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

### 나. 제출방법

####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덕천면 동학로 742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유족 신청 바로가기



## 3. 문의처

####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063-530-9434 ~ 5)

#### ○ 위원회 홈페이지([www.cdpr.go.kr](http://www.cdpr.go.kr)) 또는

기념재단 홈페이지([www.1894.or.kr](http://www.1894.or.kr))



Inscribed on the  
International Register  
Memory of the World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세계기록유산 등재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